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태동 그리고 개척

—

1964~1992

국가 에너지 85%가 석탄과 땔감 나무였던 시절,
석유산업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4

극동석유공업,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의 태동

1964년 11월 19일 설립등기를 마친 극동석유공업은
1965년 12월 31일 부산 용당동 부지 12만㎡에
하루 3,000배럴 규모의 공장을 완공했다.



초기 부산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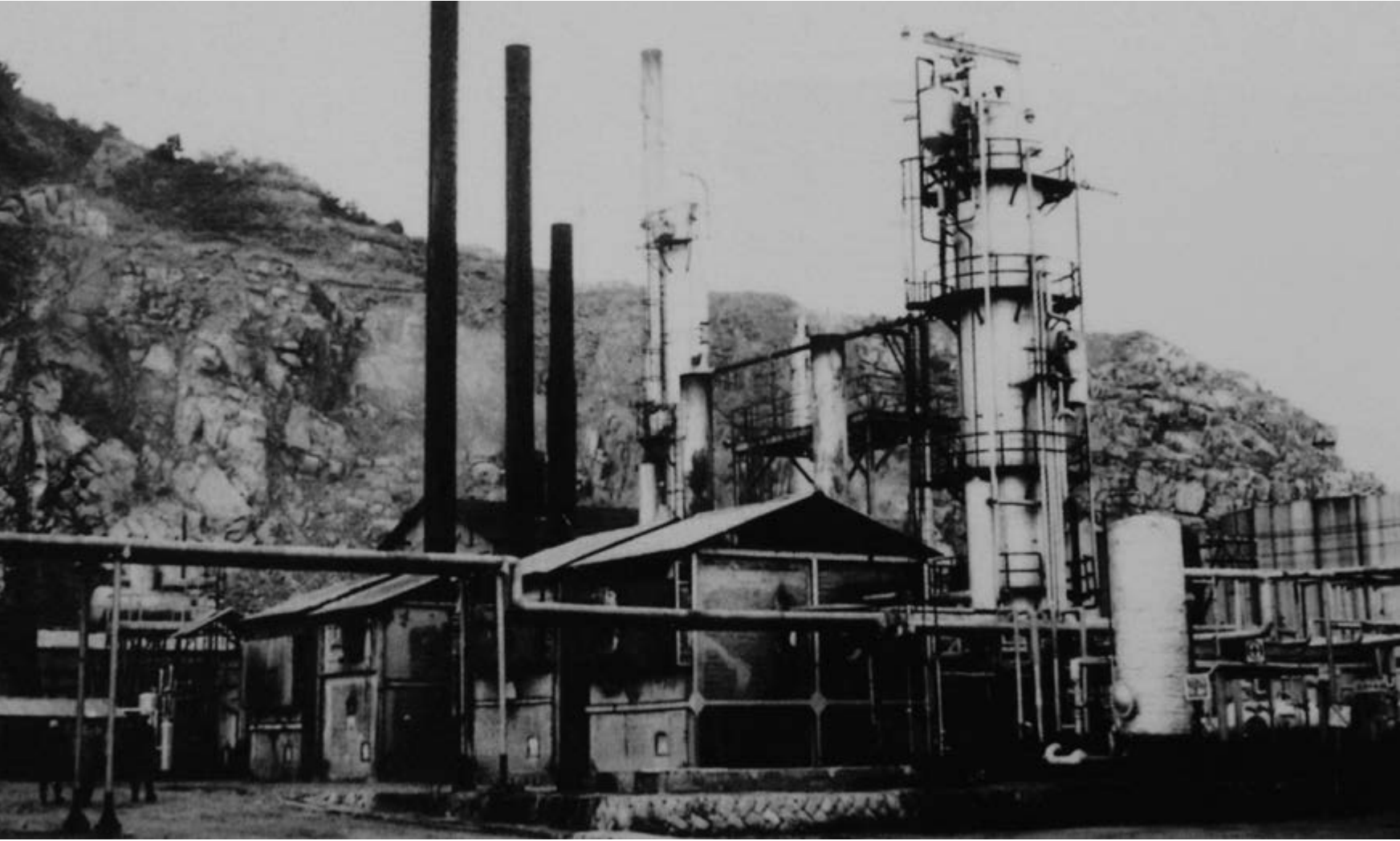
“극동석유공업은 부산공장을 완공, 우리나라 조유(粗油)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국내 유회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은 물론 연료유와 아스팔트도 생산하게 되었다. 부산공장은 특히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국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점,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체기술과 노력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극동정유 25년사』에서



정상 가동 중인 감압증류탑

힘차게 뿜어나오는 진공제트는 당시 극동석유공업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부산공장 주요 설비

가운데 초유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워진
상압증류탑(왼쪽)과 감압증류탑(오른쪽)



극동석유공업의 초창기 운전 관계자들



1966 윤활유분, 아스팔트 생산

원유정제와 함께 윤활유분과 아스팔트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시작한 극동석유공업은 1966년 5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1967

블로운 아스팔트 개발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블로운 아스팔트(Blown Asphalt)는 기존 제품에 비해 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1967년 초 처음으로 철도청에 납품하며 전국적으로 판로를 넓히기 시작했다.



1968 윤활유 용제탈납장치 준공

윤활유분의 품질 및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제탈납장치(MEK)를 준공했다.

▶
셸과의 합작 이후 합동중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장홍식 회장
(중앙 정면)



1968

극동셸석유(주) 사명 변경

극동석유공업은 일대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유기업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社와 합작투자 및 차관공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사명도 극동셸석유(주)로 변경했다.



종로 탑골공원 옆에 위치했던 극동셸주유소



1969

고급유평화유 배합공장 준공

셸社와 합작 이후 첫 번째 시설확장사업으로 고급유평화유 배합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1973년 극동셸판매(주)를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과 판매를 분리해 경영하기 시작했다.



부산공장 야적장에 쌓아 놓은 유평화유 제품들



1972

감압증류시설 확장

Heavy Waxy Oil을 생산하기 위해 제2 감압증류탑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2,000배럴에서 3,000배럴로 처리능력을 높였다.

1972

상압증류시설 확장

감압증류탑 건설과 동시에 상압증류탑 보수를 시작해 기존 3,000배럴에서 5,000배럴로 처리능력을 높였다.





1977 극동석유(주)로 사명 변경
한국에서 철수하는 쉘社의 지분 50%를 현대가 인수함에 따라
극동셸석유(주)는 극동석유(주)로, 극동셸판매(주)는 세일석유(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부산공장에서 제품출하를 기다리는 탱크로리



1978 일산 1만 배럴 증설
1970년대 중반 국내 석유제품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극동석유는 정제시설 증설을 추진했다.
1만 배럴 규모의 상압증류탑을 신규로 건설하고 이에 맞춰 7,000배럴 감압증류탑도 연이어 준공했다.



1981 극동도시가스(주) 설립

1980년에 극동석유는 국내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따라 정유업계 최초로 도시가스공급사업자로 선정됐다. 1981년 3월 5일에 극동도시가스(주)를 설립,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며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1981 용제추출시설(FRU) 건설

국내 최초로 용제를 사용한 하루 2,000배럴 규모의 윤활유 불순물 추출시설을 건설했다.



1983 제2 용제탈납시설 건설

고급윤활유 생산에 필수적인 용제탈납시설(MEK)의 용량 부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자, 극동석유는 하루 1,000배럴 규모의 제2 용제탈납시설을 건설했다.

1988

극동정유(주)로 새로운 도약

극동석유는 명실상부한 정유회사의
면모를 갖추고자 사명을 극동정유(주)로 변경했다.
동시에 ‘크린에너지’ 슬로건, CI, 심벌마크,
마스코트를 제정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업 이미지를 확립했다.



극동정유로 탈바꿈한 주유소의 모습



극동정유는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심벌마크



마스코트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극동정유 사옥



극동정유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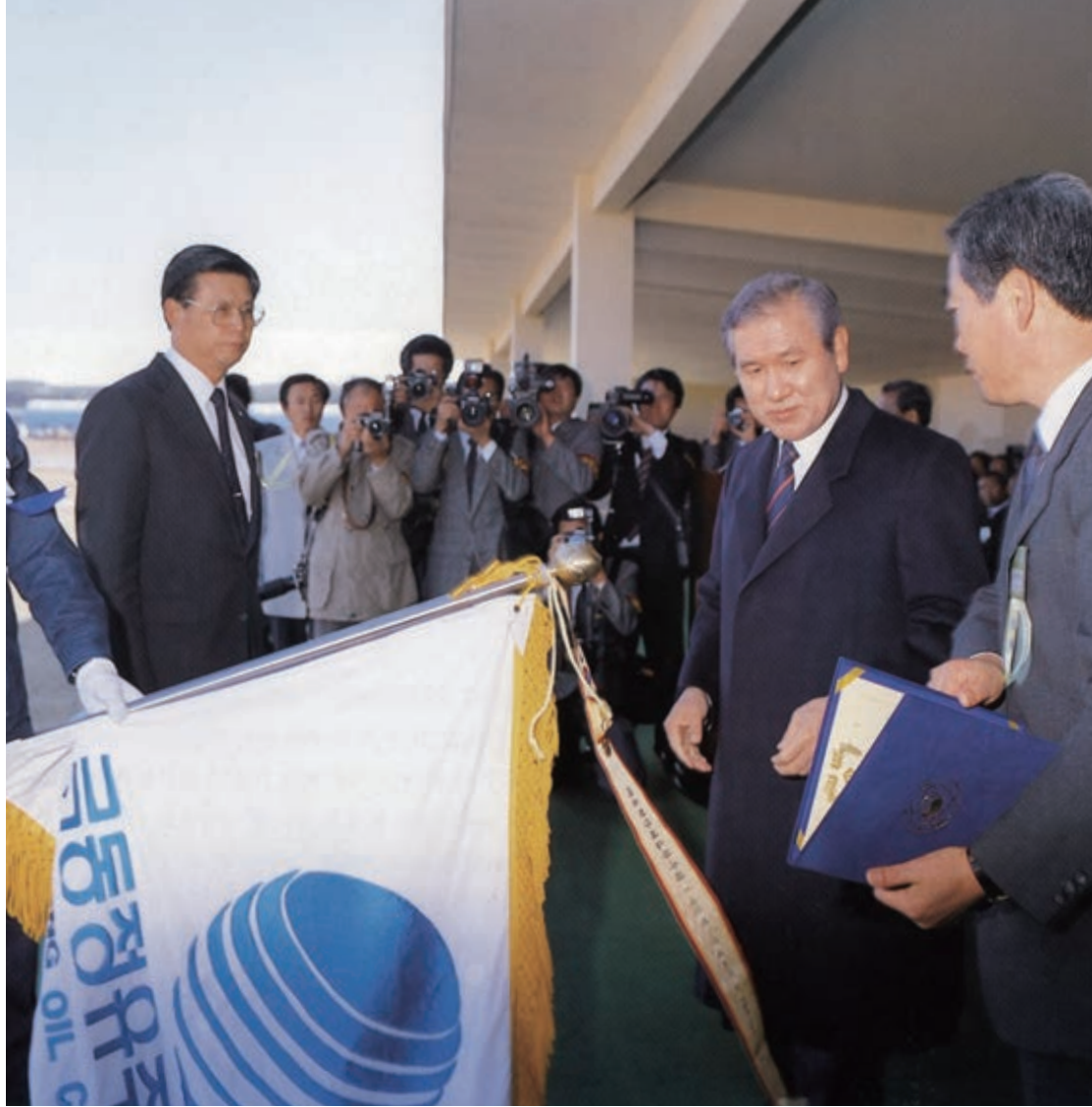
1989

대산의 시대를 열다

1989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을 대죽리 일대,
극동정유는 하루 6만 배럴의 첨단 원유정제시설과
국내 최초 3만 4,000배럴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춘
대산공장을 준공하며 서해안 시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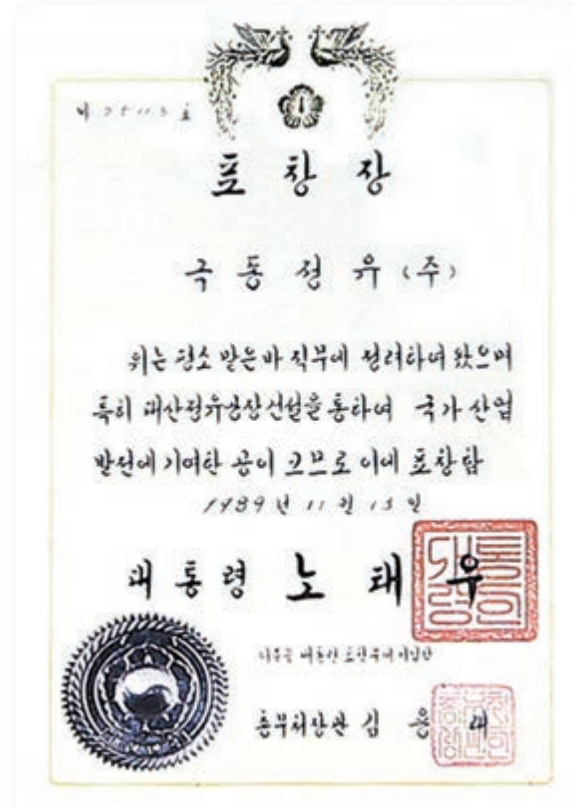
극동정유 대산공장 준공식



1989

대산공장 준공

1989년 11월 13일, 극동정유가 공사 6년 만에 대산공장을 준공했다. 충남 서산시 대죽리 일대 181만 5,000㎡(55만 평) 부지에 세워진 대산공장은 서해안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하루 6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 지도를 바꾸어 놓은 이 땅에서 오늘 극동정유주식회사의
대산공장 준공을 시발로 서해안 개발에 대한 우리의 원대한 꿈이
이제부터 하나씩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

1989년 11월 13일, 노태우 前대통령 치사에서





1985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된 대산공장 부지



1987년 원유탱크 등 중량물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산공장



1988년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끝난 대산공장

“충남 대산은 정유공장이 입지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 매립지 외항의 수심이 깊어 VLCC(대형 유조선)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둘째, 수도권과 수송거리가 가까워 도심에 저유황유 공급이 유리하며 셋째,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서해안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극동정유 25년사』에서



지반강화, 콘크리트 공사



감압증류탑 설치 공사



철근구조 공사



원유저장탱크 공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산공장의 모습



1986 대산공장과 천안을 잇는 송유관 공사
대산공장 건설과 함께 대산공장에서 천안까지 92.5km에 이르는 송유관 공사도 진행했다.



1989 천안저유소 준공식
당시 이봉서 동력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부터 4번째)과 극동정유 장홍선 사장(사진 왼쪽부터 4번째) 등이 참석해 준공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극동정유, 존립의 기로에 서다

대산공장 준공으로 인한 행복도 잠시, 극동정유의 경영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990년, 막대한 건설 공사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동에서 걸프전쟁이 발발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중동산 원유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설상가상 새로 지은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극동정유는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화재가 발생한 중질유 분해시설



출처: 1991년 11월 22일 동아일보(상), 1991년 2월 14일 연합뉴스(하)



극동정유 주주총회

현대그룹은 극동정유 주주총회에서 장흥선 前사장의 주식 지분 30.5%를 넘겨받아 경영권 인수를 매듭지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잠기간 표류해 온 극동정유가 최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흥선 전 사장이 주식 양수 양도에 대해 합의하고 외환은행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물꼬를 마련했다.

현대와 장 전 사장은 최근 만나 장씨가 보유하고 있는 극동정유 주식 30.5%를 현대가 강탈 인수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지난 25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신규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외환은행은 28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현대가 장 전 사장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지분 50%와 함께 모두 80.5%를 보유하게 돼 극동정유의 경영을 장악하게 된다. 정확한 주식 인수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극동정유의 자본금이 2천6백60억원에 달해 장 전 사장의 주식가격은 약면가치만 8백11억여원에 이르고 있고 일정규모의 프리미엄이 덧붙을 것으로 보여 전체 규모는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여신관리 규정상 출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금여유가 있는 현대석유회사,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다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식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영권에 관한 집착을 보였던 장 전 사장이 현대에 지분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은 극동정유가 오는 30일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등 극동의 채권 은행들은 극동정유가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5백1억원의 빚을 갚기 위한 증자안 등을 30일까지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었다. 자금여해이 없는 장 전 사장으로서의 경영권을 요구하며 종자에 반대하는 현대에 맞설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54년 설립해 국내 정유시장의 8%를 장유하고 있는 극동정유는 70년 합작회사인 웰사가 될 수하면서 현대가 지분 50%를 인수했으나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유시설 증설 등으로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91년 이후 현대와 장 전 사장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계속돼 왔다.

현대는 외환은행의 승인을 받아 오는 30일 임시주총에서 주식인수 작업을 매듭짓는 대로 2천여명의 추가증자와 사실상 문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는 또 극동정유의 인수로 정유에서 석유회사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됐으며 정유업을 석유회사와 연계시켜 주력업종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여 기존 정유업계에 일대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광장수 기자

경영분쟁 극동정유 현대그룹 인수확정

외환은행, 장흥선 전사장 주식양도 승인

표류하던 극동정유

출처: 1993년 6월 29일 한겨레신문(좌), 1992년 4월 10일 경향신문(우)

30년 극동의 시대가 막을 내리다

극동정유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정부 주도의 위탁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계속된 누적적자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결국 현대그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극동의 최대주주인 현대는 수차례의 주주총회를 통해 지분 85.88%를 확보, 극동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1993년, 창사 30년을 눈앞에 두고 극동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Monument 1

아산과의 만남

현대정유의 출범과 도약은
아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전과 실천을 강조했던 峨山 정주영.
우리의 가슴속에 늘 아버지로 남아 있는
아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처럼 굴곡진 50년을 보내온 지금,
다시 한 번 당신을 생각하며 더 힘찬 미래를 다짐합니다.



1996 현대정유 20만 배럴 증설 준공식에 참석한 峨山 (사진 왼쪽부터 7번째)
現代 가족으로 추진한 첫 사업, 대산공장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증설.
峨山을 비롯한 현대그룹 가족들이 총출동해 현대정유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다.

“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에서



1997 오일뱅크스 창단식에 참석한 峨山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섰던 峨山은 현대정유 아이스하키단
‘오일뱅크스’ 창단식에 참석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 체육은 체육 경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진취적인 가능성의 정신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끌고
국민에게 패기와 진취력을 심어 주면 한국의 모든 분야는 활력에 넘치게 될 것이다.”